

문화산책

“AI 시대, 문화로 연결되는 광주와 전남 미래”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오늘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교육과 행정 전반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광주 역시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미래 도시로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에, 인간의 감수성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AI는 이미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음악과 글, 그림까지도 만들어낸다. 창작의 영역마저 기계가 넘보는 상황에서 예술의 의미는 한편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감각과 해석의 힘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술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술은 속도를 추구하지만, 감수성은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한다. 알고리즘은 패턴을 찾아내지만, 예술은 예외와 그에 따른 다름을 발견한다. AI가 평균값을 지향한다면 인간은 그 평균에서 벗어나는 개별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AI 시대의 예술은 기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담아내지 못하는 인

간의 미묘한 감정과 기억, 상처와 희망을 공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고장 광주는 오랜 시간 ‘문화도시’를 지향해 왔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 공동체적 연대의 경험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여기에 AI 산업이라는 새로운 축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과 문화가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갈 때 비로소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기술이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된다면 문화는 그 성장을 인간 중심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된다.

AI 시대에 돌입하며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술과 인간, 데이터와 감성의 영역에서 문화 콘텐츠는 한 방향이 아닌 입체적인 사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매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을 활용하되 관람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이와 청년, 중장년층 모두가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전략을 세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문화와 예술,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고 전남은 풍부한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 역사적 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다.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될 때 문화적 자산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될 수 있다.

광주의 미술관과 문화기관, 전남의 역사문화 공간과 자연 기반 문화자원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통

합된 문화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 인프라와 지역의 전통문화, 생태 환경이 연결되면 보다 풍부한 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관광과 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지역 전체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AI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에는 기술과 문화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진다.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한다면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아트, 문화관광산업 등 새로운 장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융합은 단순한 산업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는 도시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다. 가까운 미술관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지역의 문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휴식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러한 일상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 간다. 결국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기술의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어떤 가치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도시의 두뇌라면 문화는 그 심장이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그 심장이 더 넓고 빠르게 뛰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AI 시대, 인간의 감수성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의식적인 노력과 정책적 선택,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산업과 문화, 기술과 인간, 도시와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때 광주는 단순히 스마트한 도시를 넘어 감수성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파편에서 시작되는 문화

이인선

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주무관



우리는 왜 완전함을 지향할까. 삶다 보면 계획은 어긋나고 관계는 흔들리며 마음은 종종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더 크고 더 세롭고 더 완성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발전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지만, 삶은 완성된 결과로만 남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과정에 남은 작은 순간들이 기억되고는 한다. 잠에 들기 전 쓰는 일기, 여행 중 찍은 사진 한 장, 대화 속에서 문득 마음에 남는 문장 같은 것들, 지나가는 하루지만 그 순간 하나 때문에 오래 기억되는 순간들이다. 완성된 이야기라기보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작은 조각들이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시 ‘파편의 파편’을 준비하며 나는 이 질문을 자주 떠올렸다.

이번 전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업해 온 두 작가, 박치호(b. 1967)와 정광희(b. 1971)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작품의 형태도 다르지만, 두 작가의 작업에는 공통된 시선이 있다. 완성된 형태보다 그 뒤에 남겨진 흔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박치호 작가의 그림에는 지워진 얼굴과 몸의 일부가 등장한다. 그것들은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마치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진 기억처럼 어떤 흔적만을 남긴 채 캔버스에 머문다.

그 형상들은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살아 가며 경험하는 감정과 상처를 건드린다.

정광희 작가의 작업은 달항아리를 통해 질문을 건넨다. 전시장에는 깨진 도자 파편들이 놓여 있다. 부서진 조각이 압도하는 공간에서 관람객은 파편 그 자체로 존재하는 흔적을 본다. 무엇이 완전한 것이고 무엇이 미완인지, 그 경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품을 어떻게 완벽히 설명할까보다 관람객이 이 공간에 있는 순간, 어떤 자신을 만나게 될지를 더 고민했다. 그리고 전시장 입구에 질문 카드를 놓았다. 전시를 보며 마음에 남은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자신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지금 머릿속에 남은 생각의 조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지.

시간이 지나며 카드에는 짧은 문장들이 하나씩 쌓였다. 누군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적었다. 어떤 문장들은 놀라움 만큼 솔직했고, 또 어떤 문장들은 한 줄의 시처럼 남았다. 이 문장들이 쌓여 전시는 더 이상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게 되었다. 작품이 질문을 던지고 관람객이 자신의 언어로 답을 남기는 순간들, 그 사이에서 전시는 하나의 조화로운 대화처럼 확장되었다. 여기에 지역이나 언어의 경계는 없었다.

전시 준비하며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지역에 위치한 국립문화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오랫동안 주요 문화기관의 기획은 국가 단위의 문화 담론이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예술 기획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이 지닌 고유한 경험과 예술적 서사를 어떻게 함께 담아낼 것인가라는 고민도 이어져 왔다.

최근 전시 기획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업과 그들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감각을 함께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예술적 경험이 더 넓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예술은 거대한 문화 서사의 주변부가 아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시간과 감각, 그리고 고유한 예술적 세계를 품고 있다.

전시 ‘파편의 파편’은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문화는 하나의 중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발견된 수많은 경험의 조각들이 끼여져 쌓이고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문화의 미래 역시 그렇게 시작될지 모른다.

한 지역에서 발견된 작은 파편 하나에서부터.

취재수첩

스타가 여는 예술의 문

정재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유명인의 전시는 늘 그렇듯 화제를 낳는다. 익숙한 이름 덕분에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광주에서는 배우 김희선이 큐레이터로 참여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ATO : 아름다운 선물’전이 오는 4월 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뉴스뮤지엄 ACC에서 펼쳐진다.

대중과 예술을 잇는 다양한 시도를 해온 김희선은 이

번 전시에서 작가들과 소통하고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등 콘텐츠 디렉터로 참여했다.

참여 작가 면면도 화려하다. 김창열과 박서보, 이강소, 이우환, 정창섭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부터 동시대 미술을 이끄는 작가들까지 폭넓게 포진했다. 여기에 지역 출신 작가인 임지순, 허일재, 허희태, 이이남 등도 함께한다.

한국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기에 손색이 없는 구성이지만, 많은 이들이 전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배우의 이름에서 출발한다. 평소 미술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한 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연예인이 참여한 전시는 늘 논란을 동반한다. 하지

만 조금 다른 시선 역시 존재한다. 유명인의 이름이 미술관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어서다.

예술은 본래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진다. 그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무엇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전시 공간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미술관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는 이름 때문에 왔을지 몰라도 결국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낯설던 예술을 경험하고,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며, 예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만난다. 그렇게 예술은 서서히 삶 속으로 스며든다.

예술은 때때로 조용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 유명인의 전시는 그 연결을 시작하게 하는 작은 문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온 사람들 앞에는 훨씬 넓은 예술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사설

광주 ‘RE100 연계 영농 태양광’ 성공 기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광주에 처음 들어선다고 한다. 광주시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농민대표 등과 함께 ‘본래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광주 광산구 본래동 일원 약 20만㎡ 농지에 1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10MW 규모는 3000~4000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그동안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반발을 샀던 기업 주도의 태양광과 달리 사업 과실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농민 주도로 영농법인을 만들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에 공급,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주민과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발전 수익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환원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업비 80%는 저리의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정책 자금으로, 5%는 지역 주민 참여형 펀드, 나머지는 부지 소유주와 실경작자의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과 연계돼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의 친환경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3각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모델이라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선도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인지 광주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부 등은 지난해 11월 민관협의회 출범 이후 지난 2월까지 이러한 상생구조 총족을 위해 9차례나 조율하는 등 지대한 공을 들였다. 또 앞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민에게는 햇빛연금을, 기업에게는 RE100 실현을, 광주에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광주경총 양질의 청년고용사업 ‘눈에 띈다’

지난해 광주지역 20대 고용률은 49.9%였다. 20~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절반도 안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일자리 선택시 우선시하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충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내에 부족한 탓이다.

이 때문인지 지역 청년들(15~29세)의 ‘탈광주 현상’도 가속화됐다. 순수출 청년 인구가 지난해 7081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006년~2025년까지 20년간 광주를 등진 청년만 7만 3000명이 넘는다는 것만으로도 광주에 있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올해 지역 청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해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전년(76억원)보다 43억원 증가한 119억원 규모로 확대해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나주시와 공동수행하는 이 사업은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나뉘어 총 7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과 취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구직 청년과 재직 신입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온보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미래플러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산구를 중심으로 고용 유지와 이·전직 지원, 근속지원 등 단계별 고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버티움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지역 가전산업 분야 중장년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적합한 검증, 멘토링, 채용장려금 지원 등을 하는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안착 활성화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세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인 ‘지중해’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광주경총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